

전국 첫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가시화

섬 정책 통합·건설링 기능 수행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 산업발전법안도...수출 탄력

전남도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시한 '한국 섬 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삼석·김원아·윤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서'는 우리말인 '섬'으로 바뀌게 되며,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한국 섬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30일 이내 7명 이내의 한국 섬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 섬 진흥원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고 기본연구 수행과 사업위탁·관리, 건설링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섬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발전연구원 설립·유치 연구용역(2018-2019년)'을 추진해 진흥원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6년부터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지난해 8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섬 정책의 견

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사)한국섬재단, (사)한국섬학회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지리적으로도 전국 섬의 65%인 21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당위성을 내세워 '한국 섬 진흥원'의 전남 설립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건의해왔다.

한편 김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김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김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김 산업 연구 전문기관 지정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김 품질 향상 지원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원물 생산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탈피해 김 가공·유통과 수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해양과 수산의 가치를 살려 미래성장의 거점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연계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하의도 전경. 지난 1일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도가 공을 들여온 '한국 섬 진흥원 신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 섬의 65%인 21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독특한 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전남 섬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 진흥을 꾀하고 있다. 사진은 하의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시정 우수과제 17개 행정 우수 공무원 7명 선정

광주시는 올해 추진한 분야별 시정 혁신 평가 결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 등 17개를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중점 혁신, 정부 혁신, 행정 혁신, 협업 강화, 혁신 부서 등 5대 분야 334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광주 실현(중점 혁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정부 혁신), 위기가구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행정 혁신),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공유(협업 강화)는 분야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혁신 부서로는 일자리정책관실 등 5개 부서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도 선발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선발에는 23건 사례가 접수돼 최종 우수 사례로 선정된 6건을 추진한 7명이 대상자가 됐다.

김백현 대변인실 주무관, 후보성 일자리정책관 주무관, 권도현 도시계획과 주무관, 윤홍석 교통정책과 주무관, 위경복 대중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과 김학송 주무관, 김중문 CCTV 통합관제팀장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미래 교통수단 드론산업 선점 나서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용역 보고회 항공우주연구원 "고흥이 최적지"

전남도는 지난 1일 미래 교통수단 시장을 선점·육성하기 위해 고흥군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개인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드론산업 선점에 나섰다.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 고흥군 부군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대거 함께 했다. 총괄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래비행체 개발현황 및 국내외 비행시험 인프라 분석을 통해 종합 테스트베드 조성은 전남 고흥이 최적지"라고 언급하고, 필요예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신장선 순천대 교수와 강원희(주)날다 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속도에 따른 미래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향후 폭발적인 성장에 예상된 도심항공 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기획·착수했으며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K-UAM)로드맵

을 발표하고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하면서 실증행사를 개최하는 등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국내 우수기업들이 개인비행체 시제기를 해외에서 제작중에 있어 시험 평가·실증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고흥은 전국 최대 비행시험 공역(직경 22km)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센터와 우주항공점단소 재센터가 들어서있다. 또 내년 국가중점 비행성능 시험장과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좋은 여건을 갖췄다.

전남도는 이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드론 산업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사업,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실증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내년 정부예산에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장비구축 사업'을 반영시켜 예산 심사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국책사업을 추가로 발굴·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국토부에서 12월중 지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및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남도장터' 매출 305억 최대 성과

지난해보다 4.8배 성장

전남도가 운영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11월말 기준 올 매출액이 305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매출액(63억 8000만원)의 4.8배로, 지난 2018년 5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56.4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올해 비대면 소비확산에 따른 발 빠른 대처로 온라인 판촉·홍보를 강화하는 등 '남도장터'의 신뢰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남도장터는 전남지역 1206개 업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1만3000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수는 29만명으로 지난해 2만8000명보다 10배 늘어났다.

그동안 전남도는 남도장터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 강화와 인지도 및 만족도 향상에 중점

을 뒀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소농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해 상품 상세페이지 작성과 판촉행사를 진행했으며,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판매 확대를 위해 공구마켓, 롯데슈퍼, NH물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31개사와 제휴해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했다.

또 전남 농수축산물 홍보와 국민안내TV 특별 기획전을 추진하고, 국내 온라인 쇼핑의 65%를 차지한 모바일 시장 공략을 위해 남도장터 모바일 앱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부정유통 등을 저지른 업체들은 남도장터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1억 8900여 농가에 지급

광주시는 "8900여 농가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101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따라 지급 단가가 올라 지급액은 지난해 55억원보다 46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 대비 45만원 증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5~6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을 파악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직불금은 4일부터 자치구별로 지급 계와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농가에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리는 환경·생태 보호, 농촌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화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집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